

“종교 초월해 김장으로 행복나눠요”

조계종, 한국기독교장로회, 성공회 등 3개 종교 단체와 SK텔레콤 자원봉사단, 56사단 군장병 등 800여 명이 11월 25일 조계사 경내에 모여 ‘행복 나눔 김장행사’를 실시했다.

김장 행사에는 조계종 총무원 지관 스님, 조계사 주지 세민 스님, 조계종 사회복지재단 상임이사 대오 스님, 기독교 장로회 총회장 서재일 목사, 성공회관장 박경조 주교, SK텔레콤 김신배 사장 등이 직접 김장 김치를 담가 불우이웃에게 전달했다.

이날 사용한 재료는 경기 연천산 배추, 강원도 정선 태양초, 목포 새우젓 등 모두 국내산을 사용해 최고 품질의 김치를 만들었다.

지관 스님은 “행복은 나눔에 있으며 주변의 어려운 사람들을 잊지 말고 배움으로 참다운 공덕을 지어아 한다”며 “원호 스님이 ‘달고 부드럽

3대 종교, 조계사서 불우이웃돕기 김장나누기 행사



11월 25일 조계사에서 열린 ‘행복나눔김장행사’에서 김장을 버무리는 지관 스님(왼쪽에서 두번째) 등 3대 종교지도자와 SK텔레콤 임직원들.

은 음식을 아무리 많이 먹어도 이 몸은 무너지며, 부드럽고 비싸고 좋은 옷을 입어도 이 생명은 끝난다’고 말하며 “행복은 나눔에 있으며 주변의 어려운 사람들을 잊지 말고 배움으로 참다운 공덕을 지어아 한다”며 “원호 스님이 ‘달고 부드럽

“문화재 반환은 민족 정체성 복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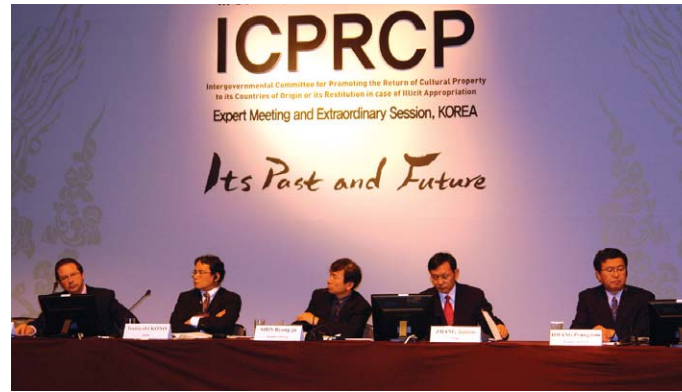
유네스코 ICPRCP 30주년 기념회의서 결과문 채택

“문화유산에 접근하고 향유하는 것은 모든 민족주권의 특성”이며 “이전된 문화재의 반환은 민족 유산 및 정체성을 복원하고 재건하는 수단이다.”

세계 각국의 문화재 관련 전문가들이 한 자리에 모여 반환된 문화재 반환의 정당성을 강조하는 결과문을 채택했다. 이에 따라 조선왕실 의궤 등 세계 20개국 200여개 소장처에 반환된 우리나라 문화재 7만6143점의 환수가 국제적인 지지를 얻었다.

유네스코 ‘문화재 반환촉진 정부 간위원회(ICPRCP, 이하 위원회)’ 30주년을 기념하는 전문가 회의가 11월 26일 서울 신라호텔에서 개최됐다. 행사에는 이경우 문화재청장과 프랑수아즈 리비에르 유네스코 사무차장보 등 세계 22개 위원국 대표단 및 국제기구·비정부기구 관계자 200여 명이 참가했다.

위원회는 1973년 ‘UN총회 결의 3187’ 이후 1978년 유네스코 제20차 정기총회에서 정식으로 설립됐다. 지난 30년 동안 문화재 반환에 대한 국가 간 협상의 물꼬를 트고 불법 유



11월 26일 신라호텔에서 열린 ICPRCP 전문가 회의에서 신병주 교수(가운데)와 황명우 소장(맨오른쪽)은 외교장관 도서 반환을 촉구했다.

출된 문화재에 대한 국제인식을 제고해 온 단체다.

참가자 합의문 발표된 결과문에서 전문가들은 “위법적인 이전이나 무력분쟁, 식민지배 또는 점령으로 문화유산이 고갈됐고 이로 인해 문화적 발전과 협력에 저해됐다”며 “이전된 문화재 문제의 해결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것은 모든 국가의 책임”이라 명시했다.

이러 결과문은 각국 정부에 △관련 국제협약에 가입하고 적절한 이

행법률을 채택해 이를 효과적으로 적용할 것 △권고, 선언 및 결의와 같은 기타 국제 규범적 수단에 관심을 기울일 것 △우호적인 수단을 통해 문화재 반환과 원상회복에 관한 분쟁 해결에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 △자국 내의 이전된 문화재에 대한 정보를 공개·제공하며 해당 문화재에 관심이 있다고 생각되는 국가와 공동체에 통보할 것 등을 촉구했다.

이에 앞서 회의는 1부 회고와 전

망, 2부 문화재 반환 사례, 3부 아시아 눈으로 본 문화재 반환을 주제로 진행됐다.

한국에서는 김창규 교수(한국전통문화학회), 이보아 교수(추계예술대), 이남영 학예연구관(국립문화재연구소) 등이 발표 및 토론자로 참석했다.

특히 신병주 교수(건국대)가 주제 발표 ‘조선시대 기록유산의 유출 및 반환해법’에서 1866년 병인양요 때 프랑스가 약탈해 간 외교장관 도서 반환을 요구해 눈길을 끌었다. 토론자 황명우 소장(문화재청)도 “불법적인 군사행동으로 약탈한 문화재는 전리품이 될 수 없다”고 주장했으나, 티에리 베르텔로 정무장서관(주한프랑스대사관)은 “외교장관 도서는 현재 프랑스 국유 재산이다. 프랑스 국내법에 의해 양도가 불가능하다”는 종래의 입장을 고수했다.

한편 27~28일 각국 정부대표들이 참석한 ICPRCP 특별회의에서는 ICPRCP 30년 활동의 성과를 회고하고 ICPRCP 강화 방안 등을 중점 논의했다. 1989년부터 위원회 활동을 시작한 한국은 이번 특별회의에서 의장국에 선출됐다.

조동섭 기자 cetana@buddhapia.com

천수경을 그림으로 읽다

임효 화백, 대행 스님의 ‘뜻으로 푼 천수경’ 전시



한마음선원 선원장 대행 스님의 ‘뜻으로 푼 천수경’을 그림으로 표현한 한국화가 임효 화백의 ‘만가지...’ 전시회를 시작하며 테이프를 자르고 있다. 왼쪽부터 지관·일민·월운·지관·대행·종호·해원·해거 스님.

한마음선원 선원장 대행 스님의 ‘뜻으로 푼 천수경’을 그림으로 표현한 한국화가 임효 화백의 ‘만 가지 꽃이 피고 만 가지 열매 익어’ 전시회가 서울과 부산, 전주에서 잇따라 열린다. 전시회에서 소개되는 임 화백의 작품은 ‘뜻으로 푼 천수경’의 한글과 영문번역을 함께 실은 책자 ‘만 가지 꽃이 피고 만 가지 열매 익어’를 위해 작업한 선화들이다. 임 화백은 직접 제작한 한지와 천연

염색과 수묵 석채 등으로 선과 천수전인의 이미지를 표현했다. 서울 전시회는 11월 26일부터 12월 6일까지 송파구 방이동 보성고등학교 100주년 기념관 내 청아갤러리에서, 부산 전시회는 12월 8일부터 14일까지 해운대문화회관에서, 전주 전시회는 12월 17일부터 26일까지 전북대학교 삼성문화회관에서 각각 열린다. 11월 26일 오후 5시 청아갤러리

에서 열린 전시회 개막행사에 한마음선원 선원장 대행 스님, 조계종 총무원장 지관 스님, 동국대경원장 월운 스님, 포교원장 혜종 스님, 군중교구장 일민 스님, 고려대장경연구소장 종림 스님, 전국비구니회장 명성 스님, 삼선승가대학 원장 지광 스님을 비롯한 종단의 어른 스님들과 문화계 인사 등 사부대중 300여 명이 참석해 축하했다. 임연태 기자

공직자 종교차별 첫 시정조치

나주 공립중학교 ‘수업중 기도 강요’ 사례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공직자종교차별신고센터’가 10월 1일 개설된 이래 처음으로 종교차별 사례에 대한 시정조치를 내렸다.

문화체육관광부는 11월 24일 보도자료를 통해 “전라남도 교육청 소속 모 공립중학교 교사가 수업중 기도를 강요하는 등 종교차별행위를 한 것으로 보고 해당기관과 신고자에게 통보했다”고 밝혔다.

종교차별신고센터 자문위원은 총 9명으로 대학교수나 일반종교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명단에서 임의로 선정된다. 자문회의를 통해 종교차별로 판단된 사례의 해당 공무원은 해당기관 통보를 거쳐 국가공무원 복무규정과 지방자치단체 조례, 공무원 행동강령에 따라 처벌받게 된다.

행정조치를 전달받은 나주교육청은 해당교사에게 종교적 발언 및 기도모임을 하지 않겠다는 각서를 받았으며, 일선 각학교에 시정 사례에

관한 공문을 발송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첫 시정조치가 내려진 사례의 ‘우편집중교 선전소포우편물 십자가 표시’ 외 2건은 권고 및 시정 촉구 조치가 내려졌으며, 나머지 1건은 종교편향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내렸다. 한편, 문화부는 12월동안 지휘할 내 TV방송을 통해 공직자종교차별신고센터(www.mcst.go.kr) 신고를 홍보하겠다고 밝혔다. 노덕현 기자 (02)720-1994

코바코, 광고독점

‘헌법 불합치’

11월 27일 헌법재판소의 한국방송광고공사(KOBACO, 이하 코바코)의 방송광고 판매대행 독점에 관한 ‘헌법 불합치’ 판결로 이명박 정부가 추진 중인 민영미디어랩 도입이 탄력을 받게 됐다.

이에 따라 BTN, 불교방송 등 종교 방송과 지역방송의 경영은 심각한 타격이 불가피해졌다.

조동섭 기자

석가모니 진신 두개골

중국서 발견

석가모니 진신 두개골로 추정되는 성물을 포함한 대형사탑이 중국 난징에 위치한 절터에서 출토됐다.

중국 신화통신은 송나라 시대 장간사(長干寺) 유적지에서 ‘아소카왕탑(阿育王塔)’으로 불리는 철제사탑(높이 1.1m, 무게 409kg)을 발굴해 내부를 조사했다고 11월 22일 보도했다.

‘불정진골(佛頂眞骨)’이 발굴된 송나라 장간사 유적지는 대사찰이었던 금릉대보은사(金陵大報恩寺) 터다.

난징시 문화국 발굴팀에 따르면 “X-선 등을 동원해 100일 동안 철제사탑 내부를 조사한 결과 길이 35mm, 직경 10mm의 두개골이 있을 가능성이 높다”고 전했다. 발굴팀 관계자는 “불교의 성물인 부처님 진신 두개골 일부가 사탑 내부에 있는 것이 확실하다”고 말했다.

난징 사람들은 이번 ‘불정진골’ 발견으로 관광수입 증대 등 기대가 크다. 조동섭 기자



몸과 마음의 문제에서 가벼워지는

뒤탈없는 금강단식과 간화선 삼매체험 수련회

부처님 못자리 비봉산 활인선원 개산기념

신체적 자극을 통해 외부로 향한 타성을 내면의 세계로 회복하는데 단식으로 접근하는 것은 매우 뛰어난 수행의 방법이다. 일상의 삶을 통해 접근하는 간화선 수행의 지름길을 찾는다.

7박 8일 동안에 집중으로 공부 힘을 얻을 수 있다. 화두 참구의 길로 바로 들어간다. - 공부 힘이 생기면 생활이 공부에 방해가 되지 않는다. 공부 힘은 운명과 천성에도 좌우되지 않는다.

참선과 단식수행으로 사고의 틀을 열고 무한자재의 절대 근원의 자아를 회복한다. 몸과 마음을 다스리는 것이 수행이다. - 몸에 끄달리면 마음을 다스릴 수 없다.

活人선원에서 만나는 간화선 삼매체험
7박 8일 집중수행
뒤탈 없는 금강단식 참선의 특징과 효과

1. 체질개선 해독 여드름 피부미용 아토피 여성병(생리불순치료 폐경회복 생리연장) 체중감량-1일 최고3kg 고혈압 당뇨 위장대·소장 심장 간장 폐 신장 치료 예방 절연 등 금단현상 없는 다양한 효과. 감식과 보식이 필요 없음.
2. 자아통찰로 운명 천성이 바뀐. 심신개벽 자신감 신념증대 창의성 능력개발 성격개조 우울증 신경쇠약 정서안정 공포불안 대인관계 인내심 집중력 기억력.
3. 물만 마시고 각종 난치병 성인병을 치료 예방할 수 있다.

* 자세한 내용은 카페 참조

물만 마시고 난치병 성인병을 치료 예방 할 수 있다

- 가. 접수처 및 안내 : NAVER 카페 활인선원
- 나. 대상 및 일정 : 교교이상 일반인 60세한 (7박 8일)
- ◆ 1차 → 12월 25일 ~ 1월 1일 (활인선원)
 - ◆ 2차 → 1월 4일 ~ 1월 11일 (활인선원)
 - ◆ 3차 → 1월 15 ~ 1월 22일 (한라산 원명선원)
- 다. 회비할인및모집인원: 선착순 34명, 12월 17일까지 등록시 25% 할인 (카페 수련회 안내문 내용에 따름)
- 라. 입금계좌 : 농협 237086-51-088910 (예금주-활인선원)
- 마. 연락처 : 경기도 안성시 죽산면 매산리 活人선원
- ☎ 031)671-7707, 671-2280 (제주시 화북 1동 원명선원)